

대학 Archives란 무엇인가: Archives의 개념과 내용

A Study on the University Archives : The Concept and Contents of University Archives*

전 상 숙(Jeon Sang-Sook)**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과 성장 |
| 2. '자료관'과 '아카이브즈': 개념과 필요성 | 5. 대학의 도서관과 아카이브즈 |
| 3.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의미와 개념 | 6. 대학 아카이브즈와 대학 |

초 록

이 글은 법률 제5709호로 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료관(Archives)"의 개념 및 등장배경을 알아봄으로써 그 직접적인 설치 대상의 하나인 대학 Archives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서관과의 관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법률의 제정으로 자료관을 설치할 준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기본적인 자료관의 형태나 구조 운영 방침, 내용물 등에 대하여는 참조할만한 지침서는 물론이고 아카이브즈에 대한 이해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자료관의 개념과 의미, 필요성 등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기타 아카이브즈 설립이 보편화된 183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보급에 힘입어 팽창한 대학이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대학아카이브즈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발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수집·보존함으로써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고, 지속적인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기록의 기능적 목적과 타 기관 또는 기록과의 관계 및 기록의 내용을 연구하여 대학의 존재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기록 생산자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기관(receiving agency)이다. 이것이 수집기관(collecting agency)인 도서관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추세는 대학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위에 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은 행정적 전산 기록에 대한 정책 및 그것을 보존, 접근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각기 그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협조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많다. 대학의 각 기관은 다양한 이유로 기록물을 필요로 하고, 특히 기록의 신뢰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역사적 증거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정보화의 센터로서의 도서관과 공공기록물 전문 담당자로서의 대학아카이브즈가 함께 하여 대학의 공식적인 직무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양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주제어 : 자료관, 아카이브즈, 기록물, 공공 기록물, 역사적 증거 기록물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know about the 'University and College Archives', which are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s', and briefly mention the relation with the library, looking into the concept and backgrounds of archives. The enactment of the law became the ground to establish but there is no practical guidelines on the structure, formation, management, and contents of archives, even worse, people do not know well what the archives is. Therefore, I think to know about academic archives should start understanding basic concept, meaning, and necessities of the archives. In Europe, university archives have been established from 1830s, after the other archives had been established. In America, universities, which had been grown owe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creasing of high educated people, began to establish their archives as a way to invest to improve their being and promote continuing growth. This is to prove their being and value in the society by collecting and preserving records and documents produced i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Therefore, university archives can be said that it is the receiving agency for the producers of the university records, researching functional purposes, contents of university records, and relations with other institutions or records. This is the very difference from university libraries as collecting agencies. Nevertheless, university libraries and archives can help each other to activate their functions and improve their positions in universities through cooperating for the policy of digital records, preserving and approaching them because the tendency of informationization forces universities to stand on various information resources to serve for routine university works. Each institutions of universities needs archival records due to various reasons.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preserve and manage archival records to prove the confidence of records. Libraries can not solely manage the archival records in addition to their routine works. When the university libraries as the center of university informationization and university archives as the professional of archival records cooperate, they can serve more effectively for the official works of universities and this will improve their positions in the academic society.

Key Words : archives, records, public archives, historical documents

* 이 글은 2001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춘계 워크샵에서 발표한 글을 재정리 한 것입니다. 워크샵에서 좋은 논의를 해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sjeon@ns.nhcc.go.kr)

· 접수일 : 2001. 5. 15

1. 들어가는 말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이는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경제 및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이견과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 해도 좋은가, 정치성이 내재한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를 둘러싼 의견의 갈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기록의 중요성, 특히 통치사료, 기록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국가 통치기록을 보존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자는 데 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무엇 하느냐는 원론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제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다.

이제 공공의 기록과 사료를 보존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료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 사이의 급격한 정치·경제, 사회적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통치기록을 비롯한 공공 기록은 물론, 기록을 생활화하고 그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실이 지난 1999년 1월, 법률 제5709호로 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과 동 시행령이다. 이 법령의 제정과 공포는 비록 기록과 기록보존의 중요성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갖고있던 일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행정기관 실무자들과 수년간 접촉, 협의한 결과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사회 일반의 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기 법률안의 제정공포로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준거가 마련되었다. 동 법 제9조와 동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중앙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자료관(Archives)”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동 법에 의하여 이제 공공 기록을 의무적으로라도 보존하게 됨으로써 크고 작은 정치·경제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적되곤 하였던 책임 소재의 문제나 정책의 연계성 문제, 그 연계성을 추적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거 기록의 부재 문제 등에 대하여 개탄하고만 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기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과 시행령의 공포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대학, 단체 등에서 그간 가지고 있던 기록 보존의 필요와 그에 대한 관심을 구현하기 위한 자료관 설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 또는 ‘기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자료(기록)를 보존할 장소, 이른바 ‘자료관’(기록관 또는 아카이브즈Archives)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 및 운영의 문제 그리고 기록 보존방법의 문제 등등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자료관의 구체적인 기본적인 형태나 구조, 운영 방침, 내용물 등에 대하여 참조할만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기록을 취급하는 실무적인 차원의 일들은 각 해당 전문가들의 몫으로 돌리기로 하고, 기록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상기 법률안에서 말하는 ‘자료관’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직접적인 설치 대상의 하나인 대학 Archives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자료관’과 ‘아카이브즈’: 개념과 필요성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저장, 보관해야 할 장소를 ‘자료관’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에 해당하는 용어로 문서보존소·문서보관소·문서관·기록관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는 모두 영어로 ‘아카이브즈’Archives를 의미하지만, 어느 것도 아카이브즈가 의미하는 것에 딱히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때문에 아카이브즈의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신할 적합한 용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합의하여 통일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아카이브즈’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카이브즈라는 말은 라틴어 아르키븀Archivum에서 기원한 것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 형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나 기관을 의미한다. 이 용어의 원천적 기원을 이루는 말은 희랍어 Archeion으로, 원래는 관청이나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였다.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역사시대 이래로 인간은 경험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문자를 통해서 이른바 ‘역사’라는 이름으로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후손은 선조가 남긴 기록의 역사를 활용·축적하면서 역사와 문화, 사회적 경험들을 계승·발전시켜왔다. 때문에 역사시대 이래로 대부분의 문화적 유산은 주로 문헌을 통하여 전승되고 축적되었다. 그런데 아카이브즈는 그 어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단순한 문화유산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관습 등에 대한 기록이라기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직접

적이고 실질적인 일, 다시 말해서 행정상의 활동이나 과정에 대한, 또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면에서 주로 문자에 의한 지적 생산물을 수집·관리하는 도서관과 차별성을 갖는다. 일견 도서관과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은 그 다루는 기록과 기관이 갖는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은 물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아카이브즈는 많은 차이가 있다.

어느 문화권에서도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는 기능은 존재하였고 인류와 함께 지속될 것이다. 역사시대의 전개는 곧 인간이 공동체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발전시켜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자화된 기록들을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이 그 기능과 역량도 같이 발전시켜 왔다. 이는 또한 대개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자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문자와 기록을 통한 또는 그에 대한 활용 능력에 의하여,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지배층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능력에 대한 인식과 그 능력의 확산은 역으로 지배층의 독점적 권한을 타파하고 시민의, 대중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하고 증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계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아카이브즈’가 근대이래 사회공동체의 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면 대체 ‘아카이브즈’(Archives)란 무엇인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1) “공공기록물(public records) 또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historical documents)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 (2) “보존된 역사적 기록(historical record) 또는 문서(document)”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아카이브즈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장소인 ‘기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기록물’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상기 법령에서 지칭하는 자료관은 물론 첫 번째 개념정의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카이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질적인 움직임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민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법령의 제정과 시행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적인 기록물 관리 보존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프랑스와 영국·미국에서의 국립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던 경험과 유사하다. 이들 사례를 참조하여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카이브즈를 설립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¹⁾ 첫째,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실천적 필요성. 둘째, 문화적 필요성. 이는 도서·수고·박물관 보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1) T.S.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Kansas, 1998, pp.3-10

말한다. 셋째,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구성원들의 사회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혁명(1789)이었다. 구 지배체제의 특권을 폐지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한 시민사회를 형성한 혁명정부는 봉건적 특권을 보장하는 기록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앞으로 생산될 모든 정부활동에 관한 기록 역시 모두에게 개방되도록 규정하였다. 근대적인 시민의 알 권리를 최초로 입법화한 것이었다. 이는 곧 혁명을 통해서 확보된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기록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감시, 정부행정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자리하게 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즈의 설립과 운영은 근대시민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행위에 관여하는 모든 공인은 그 행위와 과정, 결과에 대하여 기록으로서 책임지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카이브즈에 보존되는 기록으로 평가·심판받게 된 것이다. 넷째, 실무적인 필요성. 이는 곧 위의 세 번째 이유와 연계되는 것으로서, 비록 오래된 것일지라도 기록물은 정부활동의 필요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이 그 중요 이유이다. 때문에 기록물은 정부의 기원과 성장과정을 반영하며 모든 정부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기록물은 정부활동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조직과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실무 경험에 대한 재정적·법적 구현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카이브즈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곧 그 주관 주체만 달라질 뿐 각 기관이나 개별 단체에서 아카이브즈를 설립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이기도 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카이브즈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대학에 적용하여 대학아카이브즈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3.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의미와 개념

앞에서 아카이브즈는 공공 기록물이나 중요한 역사적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 또는 보존된 역사적 기록이나 문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기관인지,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혼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카이브즈의 개념을 재정립한 T.S. Schellenberg는 기

관으로서의 아카이브즈가 내용으로서의 아카이브즈를 보존해야 할 그 내용물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아카이브즈란 “참고 및 연구목적을 위하여 영구보존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록보관기관에서 소장하거나 소장하기 위해 선별한 모든 공적·사적 기관의 기록”이다.²⁾

아카이브즈에서 소장해야 할 내용물로서의 아카이브즈, 곧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본질적인 특성은 기록물(records)이 만들어진 이유 및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서 기록물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생산되고 축적된다. 그 결과 축적된 기록물 가운데 보존해야 할 것, 즉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 곧 아카이브즈로 평정되어 앞에서 지적한 기관·장소로서의 아카이브즈에 보존된다.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 곧 아카이브즈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카이브즈로 되는 기록물이 앞에서 지적한 기관·장소로서의 아카이브즈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이유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카이브즈로 된 기록물은 처음의 목적과 보존·관리해야 할 이유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하고 또 갖게된다.

이러한 아카이브즈의 두 번째 개념정의로부터 아카이브즈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록물사료 Public Archives’는 그것을 생산한 기관에 대하여 일차적 가치를 갖는다. 기록물이 만들어진 처음의 목적과 그에 따라 보존·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가 바로 그 의미인 것이다. 기관의 업무추진 목적과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곧 그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이자 존재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차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곧 개별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가치를 갖는다. 이는 첫 번째 이유로 보존된 결과 다양한 목적으로 아카이브즈를 찾는 개인들 또는 개별 연구자들에게 아카이브즈가 갖는 의미와 그 결과 산출되는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³⁾ 이와 같이 아카이브즈의 본질적인 특성은 곧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이 그것을 만들어 낸 이유 및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되지만, 아카이브즈로 분류되어 보존·활용되는 아카이브즈는 그 존재 이유 이상, 그와 연관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활용 가치를 갖는다.

대학 아카이브즈의 필요와 의미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위에서 정의한 개념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대학 자료란 “각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이라는 기관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원(information resources)을 통합적으로 관리·경영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 아카이브즈의 의미는 대학의 발전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들을 보존하여 대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를 보증”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2) T.S. Schellenberg, *Ibid*, p.9

3) T.S. Schellenberg, *Ibid*, p.16

그것은 “대학의 존재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이거나 결정된 정책 그 자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유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과정과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⁴⁾ 이것이 곧 대학이 대학 기록물을 생산·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된 대학 아카이브즈의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이라는 ‘기관’, 즉 ‘교육기관·고등 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의 사명과 직결된 두 번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전반적인 대학 구조를 이루고 유지하는 행정기관의 기능 수행이 수월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물 가운데 대학이 만들어 냈다는 것을 확신시킬 만한 필수적인 것을 가려내어, 기록물의 형태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관의 존재에 필수적인 증거물들을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대학의 사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고취시키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바람직한 교과과정을 육성·강화시키는 일을 보조한다. 여섯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교수, 학생, 교직원)과 기타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조한다. 일곱째, 소장 기록물 사료를 활용하여 지식을 발견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해 대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 등이다.⁵⁾

한 마디로 대학 아카이브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증거 유산을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설비, 보유물, 인원, 정책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⁶⁾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본적 목적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데” 있다. 동시에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 공동체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사명과 동시에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 아카이브즈는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과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물 사료를 활용하는 학자와 일반 대중을 보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⁷⁾ 그러면 이러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 대학 아카이브즈는 어떻게 발생, 발달하였는가.

4.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과 성장

다른 아카이브즈보다 대학 아카이브즈는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다. 대학 아카이브즈의 최초 형태는 15세기 중반 경 포르투갈에서 의식적으로 대학문서를 보존·관리하기 시작한

4) "Guidelines for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1998), p.1. <http://library.wusl.edu/>

5) "Guidelines for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1998)", pp1-2

6)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SAA, 1992, p.17

7) W.J. Maher, *Ibid*, p.18

것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중세와 근세 유럽의 대학사로부터 대학 아카이브즈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설치나 창립 등 역사적 경위를 증명하는 문서·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할 필요성 (예를 들어 학위 수여권의 근거를 밝히는 교황 칙허장이나 교황의 지배권을 증거하는 연방군주의 문서 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 (2) 도시의 법에 대항하는 대학의 법적 근거를 나타내는 서류나 학내 재판 기록 등을 보존해 두어야 할 필요성. (3) 교회나 제후로부터 기부받은 토지와 같은 대학재산을 확인·보존하기 위하여 기록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 등에서 아카이브즈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곧 대학 아카이브즈는 -교회나 기업 아카이브즈 등과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이유와 필요에서 발생, 발달하였다.⁸⁾ 앞에서 설명한 아카이브즈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아카이브즈 역시 시작부터 대학의 기록물이 만들어진 이유 및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직결되는 특성을 갖고 탄생한 것이다. 대학의 존재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대학아카이브즈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대학 아카이브즈의 형성은 “골동품연구나 도서관 또는 족보학의 견지에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⁹⁾

그로부터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에 걸맞는, 보다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며 조직적·근대적인 형태로 대학 아카이브즈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일반적인 아카이브즈가 설립된 다음의 일이었다. 유럽에서는 기타 아카이브즈 설립이 보편화된 183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근대적인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 십년 동안 지속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보급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이 팽창하였다. 대학의 팽창으로 다양한 새로운 대학 기관들이 설립되자, 방대한 대학 내부의 역사를 증거하고 내부적 일체감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는 곧 아카이브즈에 대한 수요와 설립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이전보다 훨씬 폭넓게 대학 밖의 사회와 많은 부분 관련되어 진행되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바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촉발시킨 것은 1950·60년대 경제성장기의 영향으로 많은 대학들이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주요 기념식을 기획하면서였다. 주요 대학들이 기획한 100주년 기념식, 150주년 기념식 등으로 대학의 기록물, 특히 대학의 역사를 기술할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이 자각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등교육의 보급으로 팽창한 대학은 이를 위한 지원과 자금의 제공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곧 대학이 사회적 위치와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기도 하였기 때문

8) 寺崎呂男, “大學アーカイヴズ(archives) とわ なにか”, 『東京大學史紀要』 4, 東京大學百年史編纂室, 1983, pp.1-2

9) W.J. Maher, *Ibid.*, p.7

10) W.J. Maher, *Ibid.*, pp.7-8

이다. 또한 대학 아카이브즈를 설립하는 일은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직면한 대학의 뿌리 찾기, 즉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심을 현재화하는 상징이자 실질적인 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¹¹⁾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에 적응해야 할 대학의 필요성이 한편으로는 변화의 방향과 함께 변화·성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존재해야 할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기념사업으로서 대학 연혁사를 편찬하는 가운데 대학 아카이브즈로 발전해 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아카이브즈(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아카이브즈)와 같이 1875년 학교 설립과 동시에 출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학사 편찬의 필요로부터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인 하버드대학 아카이브즈 역시 1836년 대학 이백년사 편찬을 계기로 하여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중요성과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학내의 인식이 고조되어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의 초석이 되었다.¹²⁾ 이와 같이 시작된 하버드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버드대학 아카이브즈¹³⁾는 대학 도서관의 한 부서로서, 대학사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소장하는 기록보존소이자 다양한 대학 사무실의 기능을 돕는 행정 기관으로서 존재한다. 대학 기록 보존소로서, 하버드 대학 아카이브즈는 소장물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소장하고 있다. (1) 공식적인 대학 기록물: 대학의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 생산된 각종 기록물들과 의사록, 편지, 재정 기록, 인쇄물 등. 이것들을 생산된 행정 단위 별로 정리·보존한다. (2) 대학 출판물: 정기 간행물, 총장·회계 담당자·감리자 등의 보고서, 카탈로그, 지도, 기자회견문 등 대학의 공식 인쇄물과 대학 출판소의 출판물을 포함한다. (3) 학사·석·박사학위논문, 학술상 수상 논문 등 대학이 생산한 논문류. (4) 일반 참고물: 교과과정, 학생 생활, 행정기관, 교육부서, 학생 등의 조직, 학생·동창회보 등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인쇄물 또는 필사본. (5) 전기물과 대학 임직원들에 관한 기록물: 동창·스태프, 대학 관련 개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 기록물; 대학 임직원들이 간행하였거나 그들에 대하여 간행된 간행물; 임직원들의 왕래 서신 등의 기록물. (6) 시청각물: 대학의 활동·그와 관련된 사람·장소에 대한 사진, 프린트물, 그림, 동영상물 등. 이와 같이 대학 관련 기록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로서의 하버드 대학 아카이브즈는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 그것을 토대로 하여 계승·발전해가는 하버드대학의 존재를 증명하고 존재의 이유와 필요를 증명한다.

다른 한편 다양한 대학 사무실의 행정 기능을 보조하고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기관으로서의 하버드대학 아카이브즈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아래 대학 기록물 관리

11) W.J. Maher, *Ibid*, p8

12) 寺崎昌男, *Ibid*, pp.3-4

13) 이하의 하버드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내용은 <http://hul.harvard.edu/huarc/xhol-sum.htm>에서 참조하였음.

실(the Records Management Office, 약칭 RMO)을 두고 있다. RMO는 단순히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대학 사무실의 임무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대학기록물관리실이 하는 일은 체계적인 정보 선별과 보존의 필요가 있는 정보를 아카이브즈로 이전하여 관리함으로써 필요시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는데 필요한 기록물(정보)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곧 대학 행정실의 임무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MO는 대학 기록물 센터(Record Center for the Storage of Information)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3월, 대학 이사회는 소장물에 대한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 기록물 관리체계(General Records Schedule, GRS)와 특수 기록물 관리체계(Special Records Schedule, SRS)를 제정하여 대학 기록물들을 관리할 총괄적인 권한을 RMO에 부여하였다. GRS는 대부분의 대학 사무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있는 일반 기록물들에 대한 보유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SRS는 RMO의 아키비스트가 특정 부서만의 독특한 기록물이나 GR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운영하는 특별 관리체계이다. 대학의 기록물들은 하바드대학교 아카이브즈가 발행한 GRS나 SRS에 의해서만 처리된다.

이와 같이 하바드대학 아카이브즈는 행정상 그 위치가 대학 도서관의 한 부서로서 도서관 체계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대학 전체의 포괄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총괄 지휘하는, 기능상의 독자성과 권한을 갖고있는 것이다.

일층 성장하게 된 대학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사 편찬을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으로 연결된 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경대학은 12년간이나 걸친 동경대학 백년사 편찬 사업의 결과 수집한 대학 관련 자료가 학교사 편찬 작업이 종료된 후 흩어질 것을 염려하여 대학 아카이브즈를 신설하게 되었다.¹⁴⁾ 동경대학교는 대학 상설위원회로 '동경대학사료 보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사 편찬을 계기로 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보존·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사 편찬에 사상사, 정신사, 사회사 등의 방법론을 도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반영"되어 대학 아카이브즈가 영구적 시설로서 각 대학에 탄생하기에 이르렀다.¹⁵⁾

동경대학 아카이브즈는 그 기능을 관리, 홍보, 조사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수행한다. 먼저, 관리 기능은 동경대학 관련 기록물 등 사료를 수립·정리·보존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

14) 김기석,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현지 조사 결과 보고",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기록관리실, 1999, 5, pp.18-19

15) 澤木武美, 鈴木秀幸, 中野 實, 日露理好章, 松崎 彰, "大學史編纂と資料の保存", 全國歴史資料保存利用機關連絡協議會, 『記録と史料』, 1992.8, pp.36-40

인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때 대학 아카이브즈의 관리 대상이 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¹⁶⁾

- 1) 대학운영의 역사를 시사하는 공적 문서, 부책, 사무기록, 기타 문서
- 2) 대학내 제기관의 의사록, 의견서, 답신, 보고서 등
- 3) 대학이 간행하는 년보, 요람, 잡지, 신문, 홍보지 등
- 4) 대학졸업생의 졸업증서, 앨범, 강의 노트, 전기, 서간 등(해당 대학에 관계된 것)
- 5) 학장, 처장, 교수, 교직원 등이 사적으로 소장하는 대학 관계 문서
- 6) 대학설립자, 기부자, 졸업생 등 관계자의 문서
- 7) 대학역사를 나타내는 기장, 문표, 기념품, 상장과 상패, 기, 제복, 제모, 인장 등
- 8) 대학에 관련된 사진, 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
- 9) 대학사에 관한 제 간행 문헌
- 10) 학문사적인 의미를 갖는 실험기구, 연구실 제작품, 보고서 등

홍보기능은 대학 아카이브즈가 관리하고 있는 대학관련 사료들을 열람케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활용한 신·중진 교직원에 대한 연수와 전시, 동경대학 관련 홍보 뉴스제작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기능은 아카이브즈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작업, 자료에 대한 레퍼런스 작성·출판 및 이러한 활동을 통한 자료 활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¹⁷⁾ 이러한 세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대학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관리기능을 기반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관리하고 있는 사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조사연구와 홍보 기능, 기타 이용자들의 목적에 따른 추가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경대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대학 아카이브즈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사편찬 과정에서 발달된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상사·정신사·사회사 등의 방법론을 도입시키는 움직임이 반영되어,¹⁸⁾ 대학이라는 문화적 기관의 활동 기록을 증거하는 사료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일국의 문화사·학문사·교육사 자료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국가 주도로 서구의 문물을 수용·보급하는 가운데 고등 교육 기관을 집중 육성·발전시킨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서구 대학 아카이브즈의 경우에도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 대학 아카이브즈가 이러한 특성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은 경제부흥에 힘입은 대학의 급속한 성

16) 寺崎昌男, *Ibid*, pp.2-3

17) 김기석, *Ibid*, pp.20-23

18) 澤木武美, 鈴木秀幸, 中野 實, 日露輝好章, 松崎 彰, *Ibid*, pp.36-40

장을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여 활성화되었다. 그로부터 대학의 존재와 위상을 알리기 위한 특정 기념식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한 대학의 존재를 증명할 역사, 즉 학교사 편찬 작업이 초석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대학관련 기록물과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대학의 존재와 관련하여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보존·활용할 필요가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아카이브즈가 소장하는 기록물 사료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각 대학 자체의 연혁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교사편찬 작업으로부터 아카이브즈로 발달되어 가면서 소장하게된 대학관련 기록물·사료들은 일국의 문화사·학문사·교육사 자료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사회사·학문사 연구를 위한 사료의 보고로서 그 가치가 널리 인정되었다. 또한 대학의 졸업증서·재학·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보관은 대학아카이브즈가 개인의 이력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역할도 하게 하고 있다.¹⁹⁾

이러한 대학 아카이브즈의 조직이나 기능과 관련하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문직화가 가장 잘 발달된 곳이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아키비스트 전문단체(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이후 SAA로 기재)가 1936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사료조사원(Archivist)이라는 직종이 도서관 사서와 나란히 전문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SAA의 산하 단체로 대학 아카이브즈의 전문부회(Committee on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도 설립되어 있다.

5. 대학의 도서관과 아카이브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류는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을 기록·수집·축적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역사시대 이래로 대부분의 문화적 유산은 주로 문헌을 통해서 전승·축적되었다. 문헌을 통한 문화의 지속성과 창조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중심적인 기능을 한 것이 곧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인류의 의사전달 욕구에 따라 상호 소통을 위해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담고있는 도서를 수집, 정리, 활용하게 하는 정보원으로서 형성되었다. 도서관의 자료, 도서는 주로 문화적인 이유나 의도에서 생산된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은 그러한 결과물을 보존, 정리하여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지속성과 창조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집하는 기관이다.

19) 寺崎昌男, *Ibid.*, p.4

도서관은 주로 활자화된 도서(정보)가 모인 곳이자 그곳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또한 포함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시대적 요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의사전달의 욕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도서관이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단순히 도서보관소 또는 저장소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근대 이후의 도서관은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구로 자리해 왔다. 다시 말해서 근대 이래 도서관은 수집·보관한 도서 형태의 지식 및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광범위해진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기관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사회의 발전으로 정보를 수집, 정리, 보관하는 곳으로서의 기능 못지 않게 이용자의 요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다.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출자료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제3의 물결'로부터 시작하여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도서관도 정보센터로서 정보로 봉사하는 사회기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정보화사회의 추세에 따라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지식 곧 정보센터의 기능활성화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센터로서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도서자료가 특히 교육자료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필수적인 교육자료로 됨으로써 도서관 소장품의 형태를 다양화시킨 것이었다. 이후 도서관은 도서와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 필름, 마이크로 폼, 레이저 디스크 등 다양한 매체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정보화사회로 발달·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해진 멀티미디어와 전산화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센터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도서관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서관이 수집기관(collecting agency)이라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수집은 항상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도서관에서 수집할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사서이고, 도서관장서의 수집과 가치는 바로 이 사서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²⁰⁾

그리고 도서관은 이렇게 선택하여 수집한 자료(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도서관에세의 정리방법은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성'을 구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는 다수의 館에서 공통적인 분류법을 사용하여, 그것에 의

20) 『圖書館と文書館』, 『東京大學史紀要』 No.5, 1986, p.152

거해서 특정 자료를 藏書중에 넣어 공통의 목록규칙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다.²¹⁾ 그러므로 이용자는 어느 도서관에서나 일정한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도서관 자료는 주로 문화적 목적에 봉사하기 위하여 산출된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봉사개념이 변화되는데 따라 변한다. 도서관의 장서 선택 또한 그러한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선택된 도서자료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고안된 분류체계에 따라 조직되는데 보통 주제별 분류에 따른다. 도서관들은 공통성에 입각하여 정리한 자료를 물리적·행적적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기술된 자료의 표준화된 기법을 사용하여 도서관 자료 전체를 지적으로 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도서관의 기본적인 특성은 한편으로는 아카이브즈와 차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활자가 발명된 이후 인류가 기록을 보존·활용하면서 역사와 문화, 사회적 경험들을 계승·발전시켜온 역사시대 이래로 대부분의 문화적 유산은 주로 문헌을 통하여 전승되고 축적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카이브즈의 주요 내용은 그 어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일, 곧 행정상의 활동이나 과정에 대한 기록이나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이다. 이러한 면에서 문자에 의한 지적 생산물을 수집·관리하는 도서관과 차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일견 도서관과 같은 듯 하지만 그 다루는 기록과 기관이 갖는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은 물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기록을 통한 역사와 문화, 사회적 경험들을 계승·발전시켜온 역사시대의 전개는 인류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였다. 문자와 기록을 활용한 지배층의 독점적 권력을 타파하고 얻어낸 시민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록의 중요성과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근대 이래 사회공동체의 한 필수 구성요소의 하나로 아카이브즈가 자리하게 되었다.

처음에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은 같은 장소에 보관되었다. 초기 문명은 문서와 자료 형태상의 구별이 없었고 행정상의 편의에서도 도서관과 공문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혁명 이후 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또한 역으로 보존된 기록을 사회개혁을 위한 중요한 정보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기록보존소가 발전하게 되었다.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행정은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 모두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기록행정은 기록문서가 행정상의 활동으로부터 기원하는 기본적인 업무상의 특성상 기타 일반 기록과 다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문서는 행정활동에서 비롯된다. 다시

21) “圖書館と文書館”, p.152

말해서 아카이브즈의 기록은 한 기관의 경제·행정활동의 과정에서 생산·축적되어 문서자료로 누적된다. 이 기록들은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의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카이브즈의 기록은 그것이 생산된 원인과 생산구조 및 기능, 절차,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합법적 성격을 갖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물은 기록의 생산기관과 기관활동의 범주 안에 있는 다른 조직과 개인의 법적·경제적 권리의 보존과 보호에 필수적인 증거가 된다. 때문에 아카이브즈는 수집기관인 도서관과 달리 그들이 제공하는 특정한 기록의 생산자를 위해서 받는 기관(receiving agency)이다. 따라서 기록의 기능적 목적, 타 기관 또는 기록과의 관계 및 물리적 배열은 물론 기록의 내용을 연구한 위에 기록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입수한다. 다시 말해서 아카이브즈는 기관의 발달과정을 통해서 기관의 지속적인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기록을 수집·보존함으로써 기관 그 자체의 존재를 증거한다. 앞에서 언급한 아카이브즈의 기본 성격과 의미는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공문서의 근원과 특성 때문에 그것을 배열하고 기술하는 원칙과 기법은 도서관 자료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말하자면 도서관 자료가 정리방법의 단계에서 ‘공통성’을 구하는데 반해서 아카이브즈는 생산자와 아카이브즈의 목적에 따른 ‘개별성’을 명확히 한다. 또한 도서관이 자료(정보)의 제공에 최종점을 둔다고 한다면 아카이브즈는 기본적으로 보관에 최종점을 둔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용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반면 아카이브즈의 이용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비교적 고정적인 전문연구자에 한정된다.

여기서 공문서의 근원과 특성에 따른 공문서 배열의 기본적인 원칙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지적한 아카이브즈 기록의 성격상 공문서 배열의 기본원칙은 “출처의 원칙”에 의거한다. 이것은 곧 문서를 생산한 기관 또는 각기 분리된 기관의 공문서 자체를 유지함으로써 문서 생산자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그 하위개념이 곧 ‘문서군(Record Group)’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유기체적으로 구성된 문서생산기관을 이루는 주요 업무부서별 생산문서단위를 말한다. 이 기본적인 원칙과 이것을 응용한 방법은 모든 공문서 배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도서관과 아카이브즈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있어서 양 기관은 모두 사회적 변화 추세에 따라 직면하게 된 공통된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화로 집약되는 변화추이에 따라 도서관은 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 기능은 물론 존재마저 불안하게 되었다. 반면에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이라고 하는 문화적 기관의 활동기록을 증거하는 역사·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일국의 문화사·학문사·교육사의 자료고를 형성하는 한편, 정치사, 사회사, 학문사 연구를 위한 보고가 되며, 졸업증서, 재학, 근무 증명서류의 보관을 통해서, 개인의 이력을 확인, 보존하는 역할을²²⁾ 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 아카이브즈는 정보화 추세에 따라

학교 행정담당자들이 행정 및 법, 재정, 역사 등등의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기록물archival records” 곧 “역사적 증거 기록물non-current records”을 관리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²³⁾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정보화, 정보사회의 추세는 대학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존, 평정, 감정, 보급, 출판하기 위해서 기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정보를 찾아 배우며, 교원은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며, 도서관과 전산실은 정보를 보관, 보존, 보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대학의 모든 부서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위에 존립한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변화 추세는 대학 아카이브즈가 앞으로 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제공한다. 양자의 관계는 정보제공자로서의 경쟁보다는 협조를 통해서 아키비스트가 도서관과 함께 행정적 전산 기록에 대한 정책 및 그것을 보존, 접근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각 기관은 다양한 이유로 기록물archival records를 필요로 한다. 연속적인 사업계획을 보조하고, 공식적인 입장 이면의 과정을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그리고 하부구조와 연계된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증거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서관의 기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양 기관은 행정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학 아카이브즈가 대학 행정담당자들, 사무직원, 교원들의 공식적인 직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²⁵⁾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대학 정보 환경에서 도서관과 아카이브즈는 각기 그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협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6. 대학 아카이브즈와 대학

대학 아카이브즈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소장하는 기록보존소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대학 사무실의 기능

22) 寺崎昌男,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Journal of the History of Tokyo University*, No.4, 1983. 7, p.4

23) William E. Brown, Jr. and Elizabeth Yakel, “Redefining the Role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in the Information Age”, *American Archivist*, Vol.59, Summer 1996, p.273

24) William E. Brown, Jr. and Elizabeth Yakel, *Ibid*, p.285

25) Elizabeth Yakel and Laura L. Bost, “Understanding Administrative Use and Users in University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57-4, Autumn, 1994, p.597

을 돕는 행정기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대학 기록보존소로서 대학 아카이브즈가 소장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식적인 대학 기록물: 대학의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 생산된 각종 기록물과 의사록, 편지, 재정 기록, 인쇄물 등. 이것들을 생산된 행정 단위 별로 정리·보존한다. 둘째, 대학 출판물: 정기 간행물, 총장·회계 담당자·감리자 등의 보고서, 카탈로그, 지도, 기자회견문 등 대학의 공식 인쇄물과 대학 출판소의 출판물 등. 세째, 학사·석·박사학위논문, 학술상 수상 논문 등 대학이 생산한 논문류. 네째, 일반 참고물: 교과과정, 학생 생활부서, 행정기관, 교육 부서, 학생 단체, 학생·동창회보 등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인쇄물 또는 필사본. 다섯째, 전기물과 대학 임직원들에 관한 기록물: 동창·스태프, 대학 관련 개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 기록물; 대학 임직원들이 간행하였거나 그들에 대하여 간행된 간행물; 임직원들의 왕래 서신 등의 기록물. 여섯째, 시청각물: 대학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사람·장소에 대한 사진, 프린트물, 그림, 동영상물 등.

대학 아카이브즈 소장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보존소로서의 대학 아카이브즈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계승·발전해가는 또는 발전해 갈 대학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존재의 이유와 필요 및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전망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과 활용을 통해서 대학인들은 스스로 소속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한편, 이것에 기초해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대학 공동체의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식적인 대학 기록과 각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존·열람케 하는 일은 대학 내부의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게 하는 초석이 된다. 이는 곧 이른바 ‘학내 민주화’의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대학 아카이브즈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설립, 운영하는 일은 사회의 민주화와 그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록을 보존·관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기관이자 최고봉이라 할 대학의 학내 민주화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 아카이브즈는 그 소장 자료의 활용을 통해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과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물 사료를 활용하는 학자와 일반 대중을 보조하는 학문적인 기능을 통해서 일국의 문화사·학문사·교육사 자료의 보고로서도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정치사·사회사 연구를 위한 사료의 보고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대학 아카이브즈와 그 소장 자료의 성격상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대학인의 정체성·일체감 형성, 이것을 기초로 한 대학 본래의 기능인 학문탐구와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 내는 풍부한 대학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학의 졸업증서·재학·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보관은

대학 아카이브즈가 대학인 개인의 이력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역할도 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학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과 재학생을 연계하는 매개고리의 역할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과의 협조적인 작업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센터의 최고봉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寺崎昌男. “大學アーカイヴズ(archives) とわ なにか”, 『東京大學史紀要』 4, 東京大學百年史
編纂室, 1983. 7
- 寺崎昌男. “대학 아카이브즈란 무엇인가”, *Journal of the History of Tokyo University*, No.4,
1983. 7
- “圖書館と文書館”. 『東京大學史紀要』 No.5, 1986
-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SAA, 1992
- 澤木武美, 鈴木秀幸, 中野 實, 日露野好章, 松崎 彰, “大學史編纂と資料の保存”, 全國歷史資料
保存利用 機關連絡協議會, 《記錄と史料》, 1992.8
- Elizabeth Yakel and Laura L. Bost, “Understanding Administrative Use and Users in
University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57-4, Autumn, 1994
- William E. Brown, Jr. and Elizabeth Yakel, “Redefining the Role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in the Information Age”, *American Archivist*, Vol.59, Summer 1996
- T.S.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Kansas, 1998
- 김기석.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현지 조사 결과 보고”,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기록
관리실, 1999. 5
- <http://hul.harvard.edu/huarc/xhol-sum.htm>
- <http://library.wusl.edu/>